

### 서울과 제주지역에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집먼지진드기 및 응애 감작률 비교

한림의대 내과<sup>\*</sup>, 서울의대 내과<sup>\*\*</sup>, 서울대학교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연구소<sup>†</sup>

손지용<sup>\*\*†</sup>, 김윤근<sup>\*\*†</sup>, 조상현<sup>\*\*†</sup>, 정기석<sup>\*</sup>, 민경업<sup>\*\*†</sup>, 김유영<sup>\*\*†</sup>

**목적:** 최근 직업성 천식의 새로운 원인으로 확인된 굴응애 및 점박이응애가 농업종사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중요한 흡입 항원임이 밝혀졌으나, 서울지역에서 굴응애 및 점박이응애, 저장 진드기 등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흡입 항원의 감작률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다. 이에 호흡기 증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에서 집먼지진드기 및 응애류에 의한 감작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비염 증상 및 만성 기침, 호흡 곤란, 천명 등의 증상으로 19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제주 한마음의원을 방문한 환자(제주군)와 1999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을 방문한 환자(서울군) 각각 104명과 105명, 총 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먼지진드기(*D. pteronyssinus*, *D. farinae*) 및 굴응애(*P. citri*), 점박이응애(*T. urticae*), *Acarus siro*, *Lepidoglyphus*, *Tyrophagus* 등을 포함한 16종의 주요 흡입 항원의 감작률을 후향조사하였다. 항원 피부단자시험 양성은 팽진의 크기가 3 mm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과:** 서울군에서는 *T. urticae*(38.1%), *D. farinae*(27.6%), *D. pteronyssinus*(25.7%), *P. citri*(20.9%), *Tyrophagus*(13.3%)의 순서로 높은 감작률을 보였고 제주군에서는 *D. pteronyssinus*(39.4%), *D. farinae*(36.5%), *P. citri*(27.9%) *Tyrophagus*(20.2%) *Lepidoglyphus*(13.5%)의 순서로 높은 감작률을 나타내었다. 한 가지 이상의 항원에 감작되어 있는 경우는 서울군에서는 50.5%, 제주군에서는 61.5%였으며, *D. farinae*와 *D. pteronyssinus*에는 음성반응을 보이면서 *T. urticae*에 감작되어 있는 경우는 서울군에서 16%에 달하였다.

**결론:**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여 외래를 방문한 환자에서 점박이응애의 감작률이 집먼지진드기 감작률보다 높았으며 이외의 응애에서도 10% 이상의 감작률을 나타내었다.

### 천안지역 알레르기 환자들에서의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 감작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지영구\*, 최은경, 박재석, 이계영, 김건열

**배경:**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항원들 중 집먼지 진드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항원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나, 최근 이들과 같은 응애목인 잎응애(spider mite)에 의한 환자보고가 국내에서도 있었고 이들 잎응애에 의한 알레르기가 임상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점박이응애는 과수나무와 초본 식물에 많이 기생하고 있어 천안지역의 알레르기 환자에서 중요한 원인항원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점박이응애의 임상적인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외래를 방문한 알레르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하여 점박이응애의 감작률을 살펴보았다.

**방법:** 1998년 8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외래를 방문하여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한 4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피부단자시험은 55종의 흡입성 항원과 점박이응애 항원으로 시행하였으며, 대상환자의 평균나이는 37세로 남자가 227명, 여자가 229명이었고 기관지천식 환자가 308명,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148명이었다.

**결과:** 점박이응애의 감작률은 29.6%로 흔한 흡입성 항원의 감작률(*D. farinae* 37.7%, *D. pteronyssinus* 25.9%, tree 20.6%, grass 20.6%, weed 25.7%, fungus 14.5%, animal 26.1%, cockroach 9.2%)과 비교할 때 *D. farinae* 다음으로 높은 감작률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20대 (47.9%)와 30대 (39.8%)에서 가장 높은 감작률을 보였다. 점박이응애에 양성인 환자들 중 같은 응애목인 집먼지 진드기에 같이 감작된 경우는 55.6%로 점박이응애 음성인 환자들에서의 집먼지 진드기 감작률 35.5%보다 의미있게 높았으나, 집먼지 진드기에 감작되지 않고 점박이응애에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가 44.4%였다.

**결론:** 천안지역의 알레르기 환자에서 점박이응애는 집먼지 진드기와 비슷한 정도의 감작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점박이응애가 알레르기 질환에서 매우 중요한 기인성 항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